강원도 영월 북부지역의 석탄기 판교층에서 산출되는 산호 화석

정서영[1*], 김정률[2]

(충청북도 보은중학교[1] • 한국교원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2])

영월탄전 판교층 하부의 밝은 회색 내지 암회색 석회암으로부터 사방산호 *Arachnastraea manchurica, A.* sp., *Caninia* sp., *Diphyphyllum delicatum, Kionophyllum* sp., *Lithostrotionella* sp., *Lonsdaleia* sp., *Lophophyllidium* sp. A 및 *L.* sp. B와 판상 산호 *Sinopora* sp. 등 8속 10종의 고생대 산호 화석이 산출되었다. *Arachnastraea manchurica*와 *Diphyphyllum delicatum*은 단양 지역 금천층에서 이미 산출 보고되었고, 나머지는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기재되는 종들이다. 이들의 산출로 판교층에 *Arachnastraea* – *Diphyphyllum* 대를 설정하였다. 이는 단양 지역 금천층의 *Diphyphyllum* – *Arachnastraea*대, 중국 북부 Benxi 층과 중국 남부의 Huanglong 층의 *Arachnastraea* – *Benxiphyllum* 대와 *Arachnastraea* – *Kionophyllum* 대 및 미국 서부의 *Caninia* – *Desmoinesia* 대에 대비되며 Moscovian (Desmoinesian; Westphalian) 중기를 지시한다. 이들 산호 화석을 포함하는 석회암에서는 유공충, 방추충, 완족류, 복족류, 해백합, 해면 동물 등의 해서 무척추 동물 화석들이 다양하게 산출된다. 이로써 판교층은 퇴적 당시 외해 쪽이 열려져 있으며, 해수의 교란이 다소 일어나고, 생산성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정상 해수의 염분을 갖는 온난한 아열대 내지 열대의 천해 환경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